

회사소개

소나글로벌주식회사는 2010년 설립 이후 영국 CEL사의 전동공구 국내 사업파트너를 시작으로 IT 분야의 글로벌 스타트업 브랜드와의 사업제휴를 통해 얼리어답터 스마트기기를 국내 런칭 시킨 전문 무역회사입니다. IT 글로벌 마켓의 오랜 경험으로 2012년 Personal 3D프린터 선두기업인 CEL사의 계열사인 CEL TECHNOLOGY사와 국내독점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3D프린터 산업의 얼리어답터 기업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3D프린터 시장에서 4년여 동안의 경험으로 3D프린터의 필수 부속장비인 UV경화기를 'CureM' 자체 브랜드로 개발 및 제조하고 있으며, UV Technology를 활용한 신발건조 시스템, 각종 휴대용 기기의 살균/건조 기기 등 보다 다양한 제품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미래형 유망 중소기업입니다. 또한 2016년 해외전시회를 통한 보다 다양한 지역의 해외바이어와의 사업제휴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CureM의 전 직원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며, UV Curing Machine 세계시장에서의 No.1 브랜드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제품소개

후경화 장치는 3D프린터에 사용되는 재료의 특성을 좀더 향상시켜주는 필수장비로서, 폴리머 레진 기반의 재료는3D프린팅 이후 완전한 경화 성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경화 장치를 통해 재료의 컨버전으로 경화도 향상 및 재료의 바이오 특성 실현, 최상의 Casting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CureM UV경화기는 자동 회전 턴테이블이 장착되어 좌/우/상부 3면에서 보다 집중된 UV Light를 조사하여 출력물 전체의 모든 면을 효과적으로 경화시켜주며, LED 표면에 높은 광투과성 렌즈를 부착하여 보다 집중적이며, 높은 광량의 에너지를 출력물에 도달시켜줌으로써 최상의 경화 품질을 구현해줍니다.



[CureM 201]



[CureM D102-치과용]



[CureM 301-중형]

Curem's ODM Process

